

월요광장

목은 베더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 가던 무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글자나 알던 지식인이나 선비들이라면 바르게 살아가지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다. 생업이라고는 1차산업업 농업에 의존한 가운데 3강5륜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예의범절에 부족함이 없이, 씨족끼리 집성촌을 이루며 유교적 세계관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세월이었다.

어느 날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이 몰밀듯이 몰려들고, 이웃나라 일본은 조선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었다. ‘큰 갓과 넓은 띠’(峨冠博帶)에 승수 높은 도포를 입고 선비로서의 당당한 품위를 유지하던 선비라면 바른 정신 지키기가 어려웠다.

수천 년 전통문화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버리겠느냐면서 서구와 일본은 짐

승의 무리와 같은 ‘사’(邪)라고 지칭하던 위정척사(衛正斥邪)파와 전통을 버리고 서구와 일본의 논리를 따르자던 개화파가 대립관계를 이루던 때가 또 그 시절이었다.

위정척사파의 양대 계열은 경기도의 화서(衡正斥邪)파와 전통을 버리고 호남 장성의 노사 기정진(尙正眞) 문화 선비들로 이뤄졌다. 화서의 제자 면암 최익현(崔益鉉)과 노사의 손자 송사 기우만(奇宇萬)의 두 문화에서 학문을 익히고 그들의 위정척사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했던 선비가 무안 출신 민재(敏齋) 박임상(朴淋相: 1864~1944)이었다.

민재는 32세에 과나리붓집을 지고 무안에서 도보로 경기도 포천까지 찾아가 면암 선생의 제자가 되었으며, 장성의 송사 선생을 자주 찾았다하며 학문을 몰랐던 학자인데, 면암과 송사가 한말 구국 투쟁으로 의병대장이 되어 의병을 일으키자 두 분 의병대장의 예하 의병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면암은 민재라는 호를 내리려고 송사는 민재기(敏齋記)를 지어서 민재라는 호를 내려 준 면암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런 연유로 민재는 평생 동안 두 분 스승의 학문과 뜻을 따르느라 호남의 마지막 위정척사파의 큰 선비로 자리하였다.

면암은 의병을 일으켜 패한 뒤 일본 대마도에 구류되어 단식으로 순국하였고, 송사도 의병은 패하고 망국을 맞아 의분에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두 스승을 잃은 민재는 47세에 망국을 맞아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분과 분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갑오경장으로 나라의 옛날 전통이 무너지고 이른바 ‘개화파’의 새로운 논리가 지배하면서 전통 학문만 익힌 선비들은

그들과 맞설 힘은 없고, 그대로 견디자니 너무 가슴이 타들어 삶의 의욕을 잃을 때였다. 한창 단발령이 내려, 울면서 머리털을 자르던 시절 민재는 결코 머리털까지 자를 수는 없었다. “차라리 머리털을 두고 죽을지언정 머리털을 자를 수 없다”(寧有存髮而死 不可亡髮)라는 굳은 소신을 피력하면서 끝까지 보발한 모습으로 81세의 수를 누웠으며, 1944년 해방을 몇 달 앞두고 삶을 마감하였다. 민족적 의기와 위정척사 정신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 인물의 일생이었다.

집안에서 전해지기를 ‘적퇴불원’(敬退不遠)을 항상 말하면서 면암·송사 두 스승의 위패를 벽장 안에 모시고 삭발에는 항불을 피워 올리면서 지금이야 애늬들의 방해로 두 분 스승의 사당을 세울 수 없으니 조국이 해방되면 바로 사당을 세

우라는 유언을 자체들에 남겼다고 한다. ‘적퇴불원’, 그렇다. 애적이 불러날 때가 멀지 않다. 조금만 기다리면 광복이 오리라는 확신을 지니고, 계산재(溪山齋)와 평천정사(平川精舍)라는 두 사당을 개설하여 무안·함평·영광·신안 등지의 수많은 선비들을 모아 춘추대의(春秋大義)를 강론하면서 조국 광복의 씨앗을 뿌리는 데 조금도 소홀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1945년 해방을 맞이 직전 민재의 유언을 편집하여 ‘민재유고’(敏齋遺稿) 8권 4책을 간행하였고, 해방 다음해인 1946년 마침내 민재의 유명(遺命)에 따라 ‘평산사’(平山祠)라는 사당을 세워 면암·송사 두 스승의 위패를 모셨고 몇 년 뒤 두 스승 후손들의 동의와 도내 유림들의 공원에 의하여 평산사의 두 스승 곁에 민재의 위패를 모서 혈식(血食)의 군자로 모두의 추앙을 받는 지위에 올랐다.

민재 선생은 필자의 증조부이다. 우리 조부와 아버지도 애늬의 학교는 구경도 못했고, 조부는 보발로 일생을 보냈다. 유학만 공부한 조부·부친은 문집을 남겨 증조·조부·부친 3대의 문집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집안이다. 위정척사의 정신은 조국 광복에도 한 축을 이룬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의혼도 이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조칼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단상



오대한
법률사무소 민율 변호사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인터넷상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 정보주체의 통제를 벗어나 무한 복제돼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무한 복제와 이른바 ‘무한펼칠’을 부추기며 개인 정보를 공개화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필자도 네이버에서 필자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네이버 검색창 상단에 법률신문과 광주지방변호사협회에서 몇 해 전에 올린 필자의 결혼 소식이 있고, 그 아래로 필자의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올렸던 사진, 필자가 학회에 참석한다는 소식 등 자질구레한 것들이 검색됐다. 필자는 결혼해 잘 지내고 있어 괜찮지만, 만일 필자가 그 사이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법률신문과 광주변협은 글은 상당히 걸그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 ‘잊혀질 권리’다. 잊혀질 권리는 프랑스 법의 망각권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망각권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공개할 것을 반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범죄자는 과거 범죄로 인해 나빠진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범죄사실의 공표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망각권이 개인 정보 전반에 관한 논의로 확대돼 현재는 인터넷상에서 무한정 확산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실질적으로 삭제, 저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려된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된 유럽이사회 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해 규정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Do not track(추적 금지)’ 장치를 이용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자기계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자기 계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 탈퇴 등으로 올렸던 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예: 댓글)의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등과 같이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경우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타인이 올린 게시물은 배제할 수 없어, 앞서 본 필자의 경우와 같이 타인이 필자에 대해서 올린 게시물 등은 접근 배제 요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잊혀질 권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사이버 공간상의 복잡한 환경으로 인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정보주체를 보호해야 하는지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 문제, 기술적인 한계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규정도 완備하고 볼 수는 없으나, 사이버 공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개선돼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기고

광주 적시는 텍사스의 검은 눈물



고용한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교수

활용하고 있다. 이 공간은 퍼포밍 가라지(Performing Garage)라 불리며 지난 43년간의 역사(소품과 의상 등)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근대 뉴욕 실험극장의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다.

우스터 그룹의 창고극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 기억할 만하다. 이 창고극장의 시작으로 한 때 슬럼지역이었던 뉴욕 소호가 현재의 최고의 예술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스터 그룹은 많은 연극학도들에게 도심재생 문화운동의 선구적 역할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창고에서 우스터 그룹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이 막 조성되던 70년대, 연극에 가미된 융합적인 다양한 실험을 시작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담론이 활발한 지금, ‘미래 전략적인 3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융합예술창작단체’로서 우스터 그룹을 재고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로의 진보를 위한 창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공연에서 눈여겨보고 느껴야 할 부분은 작품의 제작 방식과 그 내용에 있다. 첫째로 이 그룹의 주 제작 방식에서는 고전적 텍스트를 사용하되 다른 미디어의 개입을 활성화시켜 대사를 곁감하게 축소하고 변형하는 작업을 한다. 배우의 연기, 영상의 이미지와 공간의 미학적 비주역, 영상의 음향 등의 테크놀러지를 사용하여 행위자와 관람자 사이에서 긴밀한 상

호작용을 유도해 낸다. 그 준비 과정은 매우 실험적이고 전위적이다.

무대 위에서 보이는 공간과 느껴지는 공간을 찾아 연습하고, 리허설 과정에서 의도했던 공간 외에 또 다른 공간성이 발생하는 지를 실험하며, 무대에서 관객과의 만남을 통해 발생하는 또 다른 공간성의 발전에 주목한다. 우스터 그룹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며, 매년 새로운 작품으로 재창조 해내는 독특한 작품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작품의 내용이다. 팀의 리더이며 이번 공연의 디자인을 맡은 르포르트는 대본 그대로의 텍스트를 따라가는 것보다, 작품 자체의 재창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미 창작되어 재연하는 상황이라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시간대’에 실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따라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들의 작품을 직접 보면 더 이해가 쉽다. 2007년 작품 ‘헛발’에서는 소리와 비디오테이프, 퍼포먼스가 재창조되어, 보다 시각적이고 실제적인 표현기법으로 세익스피어의 텍스트를 담아내었다. 특히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텍스트 표면상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텍스트가 말하는 본질의 의미 ‘서브텍스트’ 기능으로 보조한다.

말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당연한 과정일 수 있다. ‘ACC 동시대공연예술제’의 프로그램으로 이번 문화전당에 초청되는 작품은 우스터 그룹의 최신작 ‘비-사이드(B-Side)’이다. ‘비-사이드’ 연극은 ‘텍사스 주립교도소에서의 흑인 민속음악’이 주제이다.

이 음반에 담긴 소리는 1960년 텍사스 주립교도소에서 심각한 인종차별을 받았던 흑인 수감자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삶의 소리이다. 지금도 상당히 보수적인 미국 남부, 그리고 여기서의 1960년 전후의 상황을 이해하면 흑인 인권문제는 더 실제적으로 다가온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차별과 핍박, 그리고 그 함축적 의미가 우스터 그룹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무대 위에 올려진다. 이 생존의 소리, 삶의 노래가 전자기기에 담겨 무대 위로 올려진다.

이번 공연은 ‘우스터 그룹’의 공연은 국내 최초 내한이자 광주 단독 공연이다.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연극제인 ‘광주평화연극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비-사이드’가 초청되는 것은 가슴이 설레는 일이다. 인권 탄압의 현실을 그대로 담은 소리가 참혹하고 송고한 역사를 지닌 공간에서 공연된다. 1964년 텍사스 주립교도소와 1980년의 광주, 그리고 2017년의 광주가 문화전당에서 교차하며 재창조 될 것이다.

社說

대불산단 조선업계 위기 탈출 지혜 모아야

조선산업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형 조선소의 수요 감소와 중형 조선소의 몰락으로 가동률은 50%대로 추락하고 구조 조정과 임금 체불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체의 73%가 선박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대불산단의 지난 6월 가동률은 54.4%에 그쳤다. 2015년 82.8%였던 가동률이 2년 사이 28.4%포인트나 하락했다. 가동 부진은 구조 조정으로 이어졌다. 2014년 6월 1만313명에 달했던 고용 인원은 3년 새 절반 이하인 4990명으로 줄었다. 임금 체불도 늘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전남 서남권에서 발생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122억7200만 원(3110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전남 조선산업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상호중공업의 수요 감소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간 대형 선박 45척을 만들

수 있지만 지난해 건조 실적은 39척에 그쳤고 올해 목표는 30척, 내년에도 잔여 물량이 23척뿐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4월이면 일일이 바닥난다. 하청에 의존하는 중소 조선 업체들은 최악의 일당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대불산단은 국내 최대의 조선기자재 집적화 단지다. 하지만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다. 이 같은 구조를 탈피하려면 중소 조선 업체들이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 선박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 건조 및 진수장(플로팅 도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어선과 여객선 운항이 가장 많은 전남의 여건을 살려 선박 수리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선산업이 전남 서남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 기관들은 건조 능력을 충분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실적 근로자 재교육 등 고용 지원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 일단 철회는 했지만

에초 오늘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이 철회돼 학부모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집단 휴업이 발표된 이후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을 철회한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주말·일요일 휴식을 취해야 할 ‘워킹맘’들은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애를 태워야 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어제 오후 국회 정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계획 철회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는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을 비롯해 서울·광주·전남·대전·경남 등 일부 지회장이 참석했다. 최정혜 이사장은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지역별·개별 유치원별로 휴업에 대한 입장 차가 있어 소수의 유치원이 휴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광주와 전남에선 총 292개의 사립유치원이 당초 휴업 동침을 결의했으며, 양 지역은 휴업에 따른 맞벌이가정의 불편을 고려해 방과후교사를 파견해 종일반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유치원생들의 학습권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 한유총의 무책임한 태도와 교육부의 어설플 대응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교육부는 차관까지 나서 휴업 철회를 공동 발표 하려고 번복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유총과 성실한 협의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

유치원 휴업이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휴업 돌림고 철회, 강행, 철회 결정이 순습계 반복된 데에 아직도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설혹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아이들을 불모로 한 투쟁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

無 等 鼓

최근 별세한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野)에서 찾았다. 그는 만 28세 때 흥의의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별세 이후 일주일간 1000여 권 넘게 판매됐다고 한다. 종교책 시장에서는 몇 천원에 불과하던 일부 책 값이 10만 원대까지 뛰었다.

알려진 대로 죽음 직전까지 마 교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지난 1992년 소설 ‘즐거운 사라’를 발표한 후 음란물 제작 혐의로 구속됐다. 몸담고 있던 연세대에서도 해직을 당했다.

70~80년대에는 김지하의 ‘오적’을 비롯해 고(故)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등이 금서로 묶였다. 90년대 이후로는 ‘즐거운 사라’를 필두로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 봐’ 등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80년대까지는 이념과 정치성이 이윳었던 데 반해, 90년대에는 불관성이 주요 잣대였다.

그러나 마 교수가 상징했던 ‘아한’은 당히 보수적인 미국 남부, 그리고 여기서의 1960년 전후의 상황을 이해하면 흑인 인권문제는 더 실제적으로 다가온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차별과 핍박, 그리고 그 함축적 의미가 우스터 그룹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무대 위에 올려진다. 이 생존의 소리, 삶의 노래가 전자기기에 담겨 무대 위로 올려진다.

이번 공연은 ‘우스터 그룹’의 공연은 국내 최초 내한이자 광주 단독 공연이다.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연극제인 ‘광주평화연극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비-사이드’가 초청되는 것은 가슴이 설레는 일이다. 인권 탄압의 현실을 그대로 담은 소리가 참혹하고 송고한 역사를 지닌 공간에서 공연된다. 1964년 텍사스 주립교도소와 1980년의 광주, 그리고 2017년의 광주가 문화전당에서 교차하며 재창조 될 것이다.

문·사·철을 토대로 인문적 탐색을 전개했던 그의 문학적 여정과 향기가 깃들여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 예술을 사상 검증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철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 블랙리스트’다. 위선의 사회는 늘 그렇듯 시대를 앞서갔던 이들을 ‘미녀사냥’으로 내몰았다. 마 교수는 자살했다기보다 ‘사회적 타살’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마 교수를 단죄한 대가로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나마 깨끗해진 것일까.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마광수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
| 정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주요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사 회 2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